
민중과 교회

1. 민중신학과 교회론

나는 민중신학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쓰고 강연을 했다. 그런데 ‘민중과 교회’라는 주제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좀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교회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민중신학에는 교회론이 없다고 한다. 외국에서 민중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민중신학에서 ‘그리스도론’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론’은 아주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민중신학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은 민중신학자들이 ‘교회론’을 다루어주기를 바라기도 한다. 나 자신도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민중신학에서 ‘교회론’을 다루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민중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어렵듯이 ‘교회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싶다. 이 글이 ‘민중과 교회’라는 문제에 대해 분명한 해결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이지는 못하다. 나 자신이 가능성을 조명해가는 첫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린토

서와 공관복음서 — 특히 마르코복음과 루가복음 — 를 통해 민중신학이 말할 수 있는 교회론의 범위는 설정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고린토교회의 문제

고린토전서 1장 26절 이하를 읽어보면 고린토교회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실제로는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헬레니즘 영역 속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행히 고린토교회에서 문제가 노출이 되어서 귀중한 자료로 남게 되었다.

고린토전서 1장 26절 이하를 읽어보면 고린토교회에 처음 모인 사람들은 우리의 표현대로 ‘민중’이라고 볼 수 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보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권력 있는 사람이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1, 26, 새 번역).

교회의 처음 구성원들 중에는 지혜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하느님은 지혜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고, 유력한 자들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천하고 멸시받고 존재없는 자들을 택하셨다(1, 27). 천하고 멸시받고 존재없는 자들은 곧 ‘민중’이다. 고린토교회뿐만이 아니라 헬레니즘 영역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민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고린토교회의 처음 구성원은 예수